

일 주 문



제30회 백고자 대설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스님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경윤론 삼장에 능한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제30회 백고자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제5회 천진불어린이한마당
해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스님은 10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제5회 천진불어린이한마당'을 개최한다.



'심금' 화엄사 음악회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6시 경내에서 화엄사상이 깃들여있는 '심금'을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10월 4일 반야전에서 '원효와 요석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제3회 효사랑 잔치 한마당
연호 서울 관악구 원각사 주지 스님은 10월 6일 오전 11시 남현동주민센터 복지협의체 등의 후원으로 '제3회 원각사 효사랑 잔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창원 가을달빛산사음악회
신공 창원 구룡사 주지스님은 10월 17일 개산 88주년을 맞아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달빛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여진선원 천진불그리기대회
효신 대전 여진선원 주지스님이 10월 3일 여진미술관 야외전시장서 대전시와 충청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진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박상영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박상영 위덕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터월드 2016년도 판에 등재됐다.

<화축>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장녀 정지민 씨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의 장녀 정지민 씨가 10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서 화축을 밝힌다.

<화축> 홍무흥 前 불교TV 상무 장남 흥희택 씨
홍무흥 前 불교TV 상무의 장남 흥희택 씨가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컨벤션웨딩홀 5층 아이리스홀에서 화축을 밝힌다. (010)3575-3405.

“불교 사회적 역할 주제로 총회 개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내년 9월~10월중 총인원 옆에 새로 불사중인 국제제원관서 제 28차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의 9개 지부와 유기적으로 의논해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대회는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TF팀을 구성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9월 23일 진각종 총인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치한 WFB 세계총회 계획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2012년 여수 대회서 중국불교 대표가 티베트 스님들의 참가를 문제 삼아. 당시 대회에 참여한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가 급히 철수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진각종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정 정사는 “회원들의 참가는 본부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부 사무총장에게도 요청하는 등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러 회정 정사는 지난 4월 진각종 최초로 국제포교사 2명을 임명함에 이어 올해 2명을 후보자로 정해 연수를 실시한다. 스리랑카 태오 법사(W.L. 세라나타)와 네팔 지모



내년 10월중 WFB 한국총회 개최
네팔·스리랑카 국제포교사 연수
네팔·스리랑카 국제 포교소도 개설
불교페스티벌, 밀교총람 작업 추진

법사(넬리 바드라빠라)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회정 정사는 “우리 진각종은 부부가 함께 포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교사 2명과 포교사 후보 2명 등 총 4명은 10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남 포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소양 육성 중심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연수 후 후보자들에게는 법복과 법의가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인 보좌 업무도 부여할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중단의 해외포교에 대

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해외포교에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결론은 현지인들을 교화해 그들이 직접 포교 일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난해에 워터대사 박사학위를 받은 지모 법사는 네팔서 진각종 중지? 중풍을 현지화한 '새불교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네팔 카투만두에 반야포교소와 국제구호센터를 개소했으며, 반야포교소는 11월 중단 구호물자 전달식을 겸한 지진피해 극복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현지 3개층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반야포교소는 국제한국어학당과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했으며, 현지인을 위한 영농화사업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정 정사는 스리랑카 카루나포교소 개설도 언급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카루나포교소를 지난해 11월 개소했습니다. 네골보에 위치한 카루나포교소는 45평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국제한국어학당과 카타나 지역교회사업, 자성동(어린이) 교회사업 등을 태오 법사가 중심이 돼서 적극 추진중입니다.”

한편 회정 정사는 12월 15일 대구 엑스코내 오디토리움 공연장서 창작서원가 발표대회인 대구 심인문해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경 WFB 총회와 연계해 국제제원관서 진각종과 아시아 각국 불교문화를 한자서 소개하는 '아시아 불교문화페스티벌'과 세계밀교의식을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작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용주사, 소외계층·경찰에 물품 전달



수원 용주사(주지 성월)는 9월 24일 화산동주민센터에 쌀 2,000kg, 라면 100박스, 현금 500만원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는 용주사 사회국장 일종 스님과 화산동 동장, 각 통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용주사는 화성시 동부경찰서에 추석 위문품으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성인문해교실서 삼광사 신정자 대상



부산 성인문해교실 한마당이 9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삼광사 한글학교 발심반 신정자 보살이 '엄마의 꿈'이라는 시화로 당선돼 부산시장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병수 시장은 “아직 어머니의 뺨뺨뺨한 글이 적힌 메모지를 지갑에 넣어둔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추사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김주일 기자

배우 박재민 나눔의 집 기부... “한국인이니까요”

8월 12일 1천만 원 성금 전달

“특별한 계기 보단 자연스럽게 기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한 가지 이유라면 평소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나눔의 집(이사장 송월주)에 1천만 원을 기부한 배우 박재민(32·사진)씨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미국서 태어났지만 평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는 당연한 일이라 말했다. 박재민씨는 “사실 저도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기부하려고 빚을 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제겐 '절음'이라는 압도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차차 갚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나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라며 웃어보였다. 최근 박재민씨는 언론을 통해 3년 전부터 절에서 살고 있던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결혼 오보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시하차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의 여



3년 전 '오보 살'로 여론 비난
방송하차 후 우울증·공황장애
3년 전 서울 성불암서 지내며 극복

머리가 절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단초가 돼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성불암서 지내고 있다. “당시 여자 친구와 헤어진 무렵 SBS ‘짝’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

여자 친구와 재회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친구가 결혼설을 터트렸어요. 여론은 ‘애인이 있는데 연애프로그램에 나온 것’이냐며 비난했고,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사실 박재민은 한 때 ‘출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시절, 전공은 체육교육학과 경영학이었으나 스스로 발심해 종교학과와 철학과 전공 수업을 수강했다. 패라, 궁극적 행복, 해탈 등을 얘기하는 박재민씨의 모습은 화려한 연예인이라기 보단 깊은 삶의 고민에 빠진 ‘불자 청년’의 모습이었다. “불교는 제게 종교라기보다 삶의 가르침이자 하나의 ‘좌우명’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인간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라는 생각을 하면 모두를 존중하게 됩니다. 성불암서서 지내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통해 제게 주어진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

이경규 씨, 봉은사서 점심 설거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서울 봉은사 대웅공양간인 향적원에서 설거지 봉사했다.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인 이경규 씨는 9월 19일 신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한 그릇과 물건을 씻었다. 핑크빛 긴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이경규 씨는 많은 신도들의 관심 속에서 열심히 주방세제를 둘러가며 수세미질을 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의 중흥을 기원하며 제방의 불자님들께 드리는 글

기록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봉은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주지스님과 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은 제방의 불자님들께 근래 봉은사 운영에 관한 몇몇 신도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40여년 만에 첫 삼을 뜨려는 봉은사 중창불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봉은사가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의 탁월함,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의 수행과 포교도량으로서의 역할 및 역량을 대해서는 제방의 불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중의 규모가 있다 보니 봉은사는 때로 내부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중요성과 유명세를 시샘이나 하듯이 중풍 외부 세력의 도전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봉은사는 이러한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고 전법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봉은사 몇몇 신도들이 신도회 운영과 심지어 주지스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고 거리로 나가 시위하며, 급기야 주지스님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서명을 받는 등 그 소란과 불협화음의 사중의 답장 밖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봉은사는 물론 한국불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주지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등 봉은사 사부대중은 당혹스러운 속에서 진실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봉은사 불사를 위해 개인 재능까지도 기여하는 주지스님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주지스님 개인전 작품의 대다수는 주지스님과 인연 있는 스님들과

지인들이 구입했으며 주지스님은 전시회 판매금액에서 3,000만원을 봉은사 불사금으로 사중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봉은사가 금년부터 3년간 금강경 독송기도를 하면서 신도들의 기도 성취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금강경'독경 CD를 제작했으며 그 판권을 신도회로 기증해 봉은사 불사금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작금 몇몇 신도들의 문제는 지난해 봉은사 신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봉은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자 종루에 전통 다실 공간을 마련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단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지나치게 시비하였지만 당시 사중 담당안의 일이라 문제 삼지 않았고 불사는 원만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은사 신도회는 도 넘게 문제를 제기하는 신도에 대해 수차례 자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기에 최옥곤에 대해 제명 징계하였고, 최옥곤은 이에 대해 사회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주지스님과 신도회는 부득이 맞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제기 하는 몇몇 신도들은 신도회에 내는 연동회비조차 내지 않은 분들로 봉은사 신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40여 년간 도시공원법등 각종 규제에 묶여 건물 한 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신행공간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을 통한 내외국인들의 문화적 체험을 실현하고자 현 주지스님이 관계요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법적허가를 득하여 슬레이트가건물들을 철거하고 터를 다지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된 최옥곤 외 3명의 거사들이 이마저도 시비를 하고 나서 어렵게 마련한 정부 보조금마저 불용 처리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봉은사는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각종 수행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자장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속에서 산사의 향유가 풍기는 친환경적 도량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70년대 강남 개발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토지수용에 따른 봉은사의 실수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남의 대표 전통사찰로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배려할 필요도 있으며, 모든 참배객에게 치우와 보람을 느끼는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불사가 아닙니다.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서원하고 밤낮을 뛰어든 어려운 불사인데 지속해서 대중을 이간하고 불사를 발목 잡는다면 이의제기를 넘어 봉은사의 사세와 사력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의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봉은사 사부대중은 중창불사를 도약으로 활발하게 중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고, 제명 처분된 최옥곤 외 3명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봉은사 백년대계를 위한 중창불사 추진이 몇몇 신도들의 도를 넘는 횡포로 좌절되거나 중단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됨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제방의 불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주지스님과 봉은사에 대해 오해되고 왜곡된 내용들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9월 23일

봉은사 대중스님
신도회 일동 합장
중무원